Why are they afraid of Amazon

Intro

Problem



"미국에서 헬스케어는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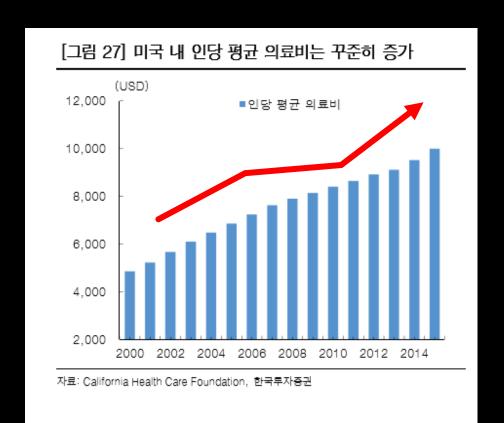
"사람 죽여 놓고 도망가는 애들"



2026년, 미국 GDP의 20%가 보험비 (현재 3조 \$) >> 아마존 매출 (1000억 \$)

BUT 미국인 기대수명 (78.8) 〈 OECD 평균 나이 (80.6)

건강보험 가성비 세계 최악







2017년 12월 Affordable care act 벌금 0\$

미국 → 공적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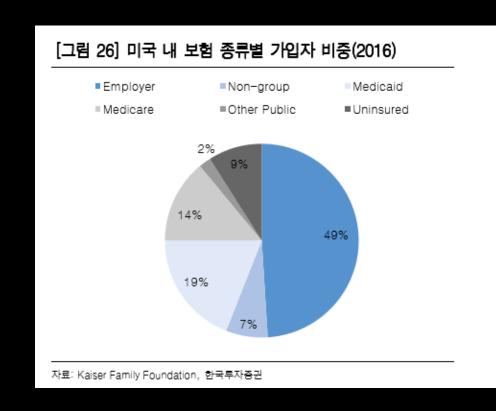
Medicare: > 65세 노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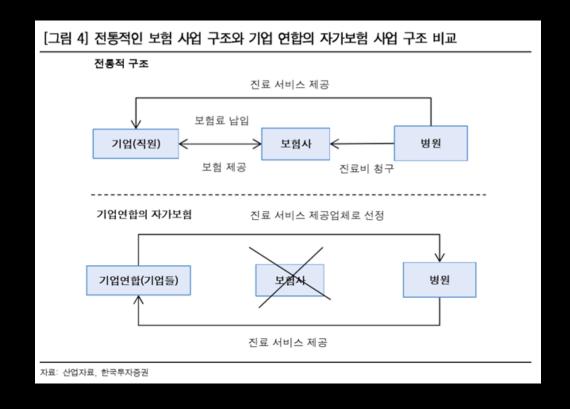
Medicaid: 저소득층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와 유사)

→ 사적 보험

Health Insurance company

: 관리의료(managed care)의 원칙에 따른 여러 개의 의료 관리 프로그램(HMO, PPO, POS)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돈 낸 것에 따라 보험 항목을 차등하여 의료보험료를 지급







America's Richest Self-Made Women



#3 Judy Faulkner

Real Time Net Worth As of 6/3/16

\$2.5 Billion

2016 America's Self-Made Women Net Worth

\$2.4 Billion

Age

Founder-CEO, Epic Systems

Source Of Wealth	health IT, Self Made
Self-Made Score	8
Residence	Madison, WI
Citizenship	United States
Marital Status	Married
Children	3
Education	Bachelor of Arts / Science, Dickinson

Science, University of

72

Judy Faulkner on Forbes Lists

#3 America's Self-Made Women (2016)

#6 i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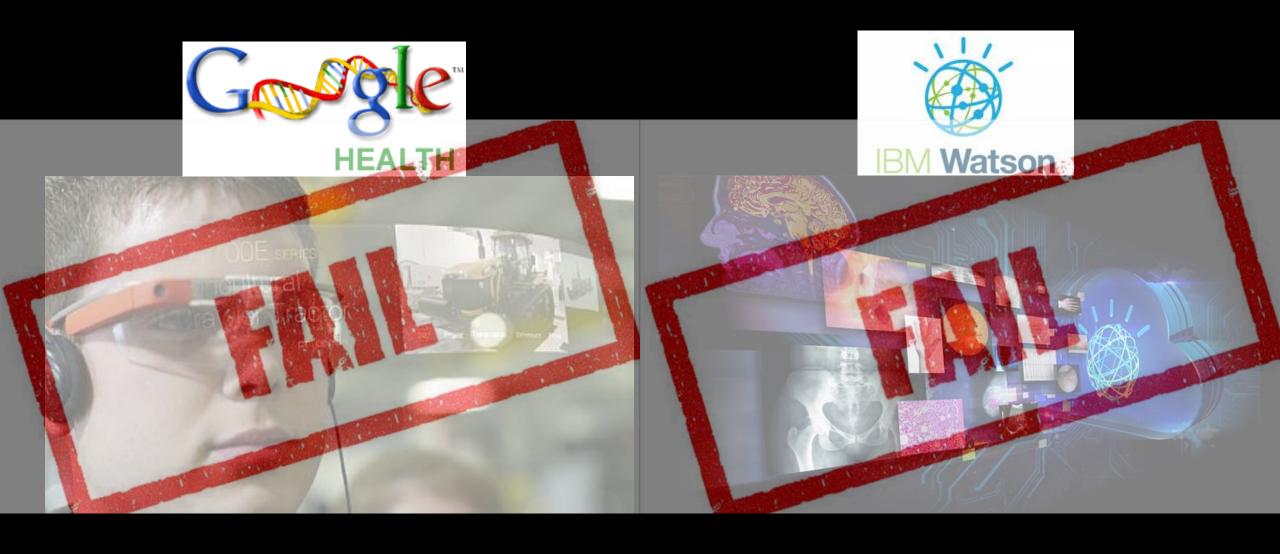
#722 Billionaire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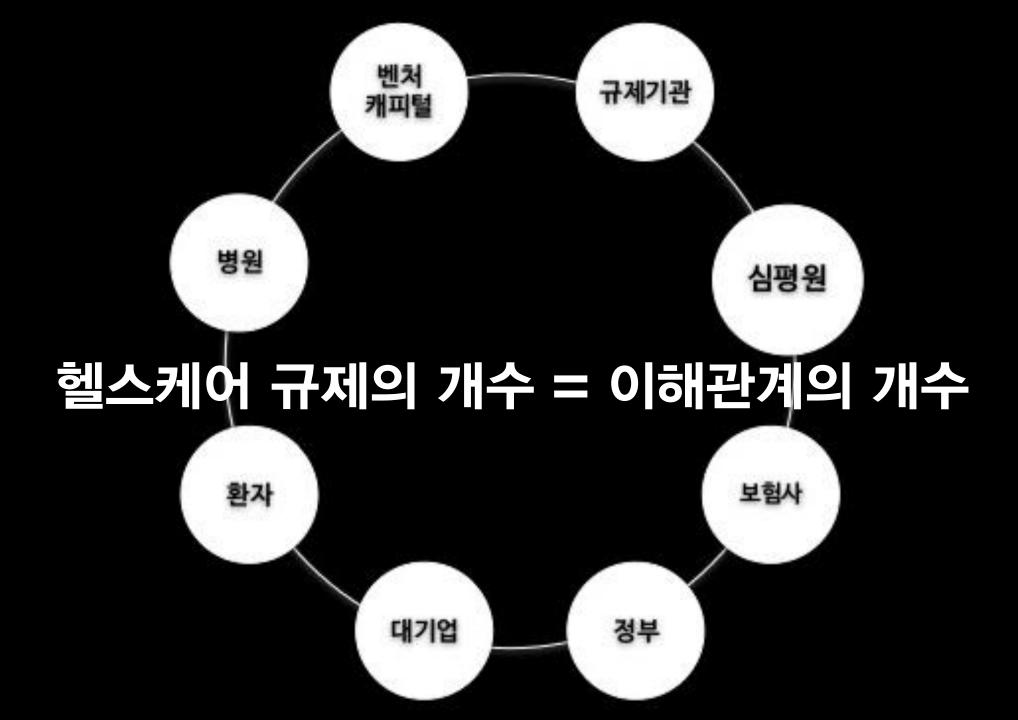
#260 in United States

But!

Have you ever heard about Judy?

의료업계 = 보수의 끝판왕





CONSUMER-FACING PRODUCT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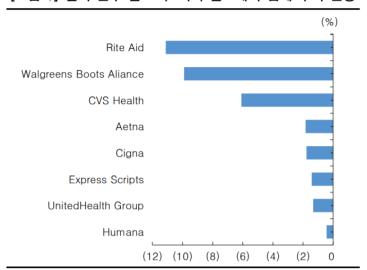


[그림 1] 미국 민간 보험사 주가 추이

(p) 250 UnitedHealth Group Aetna Humana Cigna Centene 150 Jan-16 Jul-16 Jul-17 Jul-17 Jan-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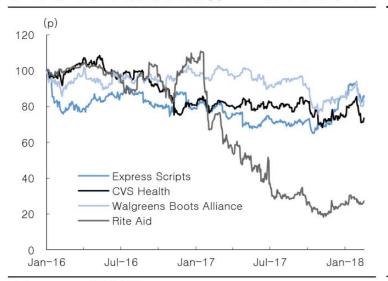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1] 필팩 인수 발표 후 미국 헬스케어 업체 주가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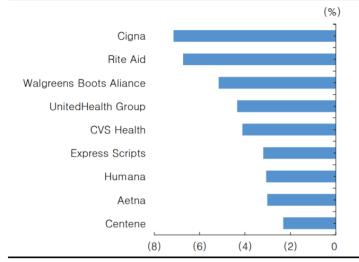
주: 6월 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 및 PBM 업체 주가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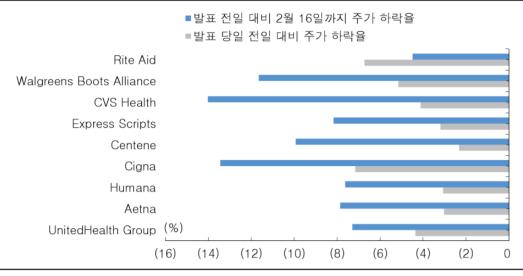
[그림 2] 이는 아마존 연합 발표 후와 주가 흐름이 유사



주: 1월 30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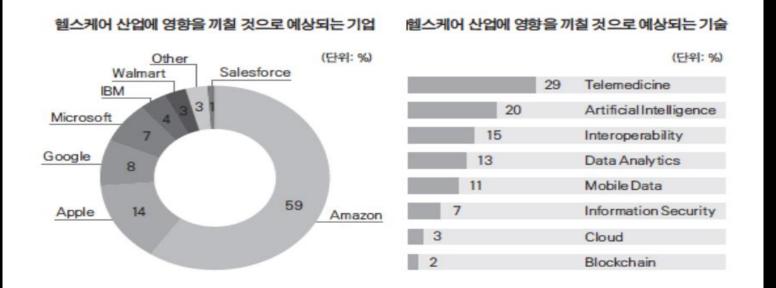
[그림 3] 아마존 연합 발표 후 주요 헬스케어 기업의 주가 등락률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좌) 헬스케어 업계 리더들이 예상한 파급력 있는 시장진입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아마존; (우) 헬스케어 업계 리더들이 예상한 파급력 있는 기술 1위는 원격의료



출처: Healthcare Disruption, Reaction Data - 2018 https://www.reactiondata.com/report/healthcare-disruption/ Accessed: 2018, 9, 10.

Why are they afraid of Amazon?

PBM

기존 문제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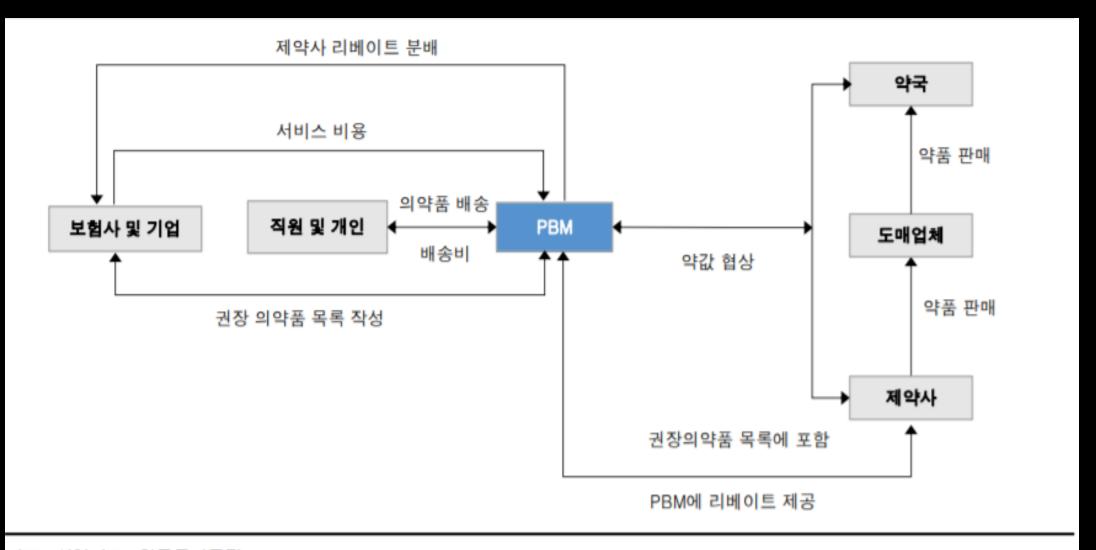
- 1) 민영화된 보험 시스템 🔿 정부의 역할 및 지원 제한
- 2) 일반기업: 민간 보험사 위탁 혹은 자가보험
- 3) 의약품 값 등 헬스케어 비용 지속적 증가

4) PBM

PBM (Pharmacy Benefit Manager)

약제비 관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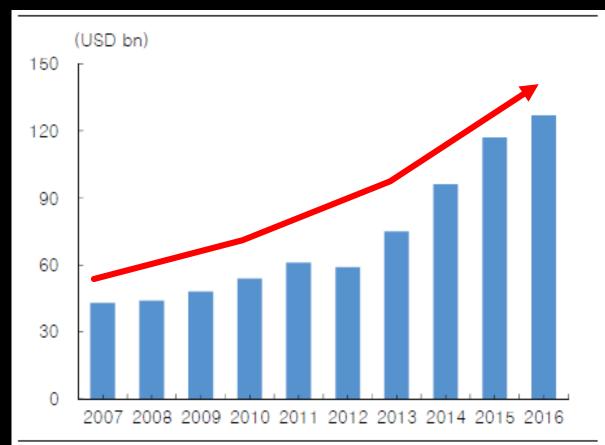
- 처방약 프로그램의 제3 중재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2억6천6백만 미국인의 처방약 관리
- 합리적 심사를 통해 약 7%의 약품비 절감
- 1) 고객별 맞춤 권장 의약품 목록 작성
- 2) 제약사와 약값 협상
- 3) 우편 통한 의약품 배송
- 4) 고객 대신해 제약사와 약국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책정
- 5) 환자 및 약국으로부터 발생한 각종 클레임 처리
- 6) 약국 네트워크 관리
- 7) 기업이 운영하는 자가보험 관리 업무 대행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

PBM 및 보험사에 지급된 리베이트 및 이익금



주: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및 외약품 할인 등 각종 직간접적인 이익 포함 자료: QuintilesIMS, 한국투자증권 PBM : 수수료 + 리베이트 = 수익모델

제약사: PBM 의약품 목록 = 수익 모델

제약사, PBM에 리베이트 제공

- → 제약사는 수익 위해 리베이트 비용 약값에 선 반영하여 판매
- → PBM은 제약사에게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 를 고객에게 분배
- → BUT 정확한 분배구조 및 리베이트 금액 공개 의무 없음

→의약품 가격 상승

신의성실 의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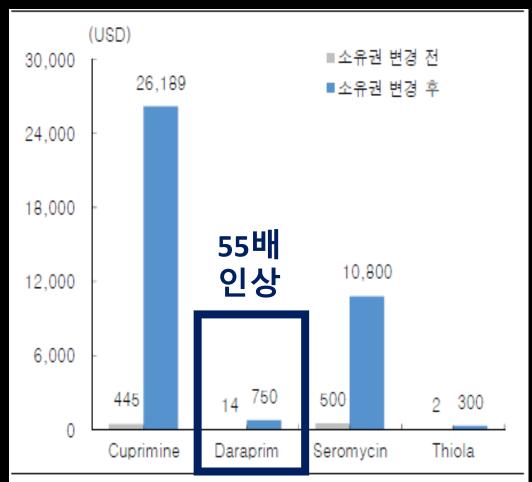
\$300(표시가격) → PBM 협상

→ \$220 = \$137(제약사) + \$18(PBM) + \$16(약국) + \$3(도매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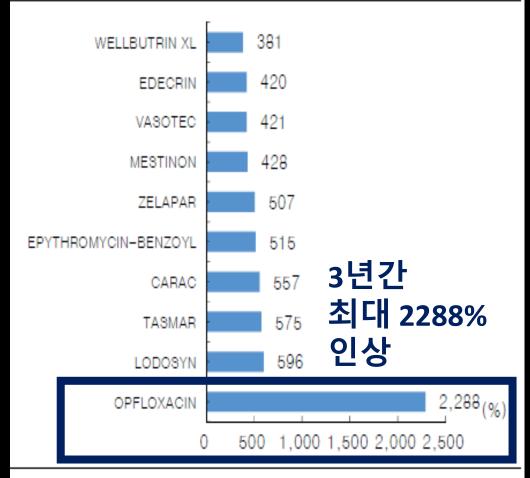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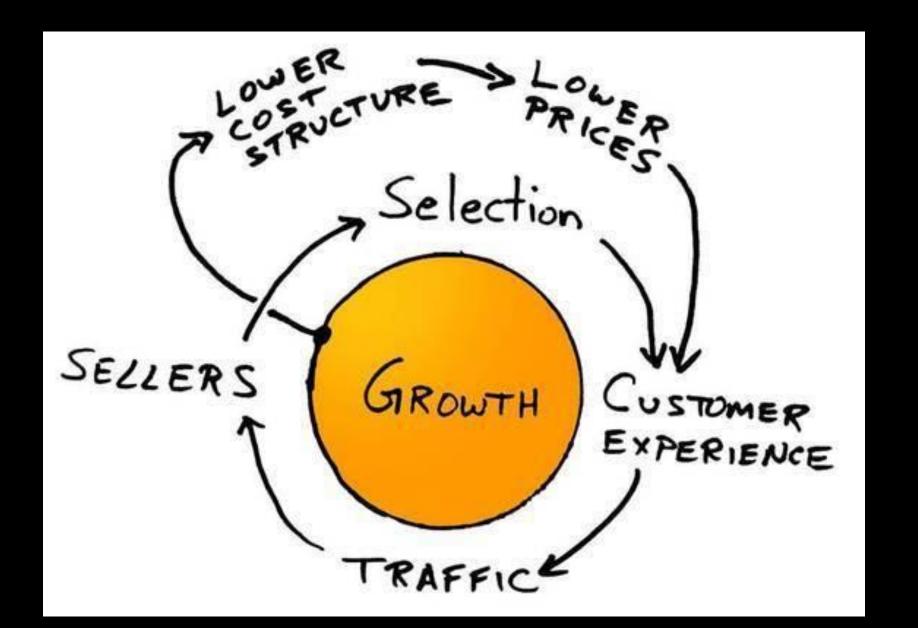
PBM 을 없애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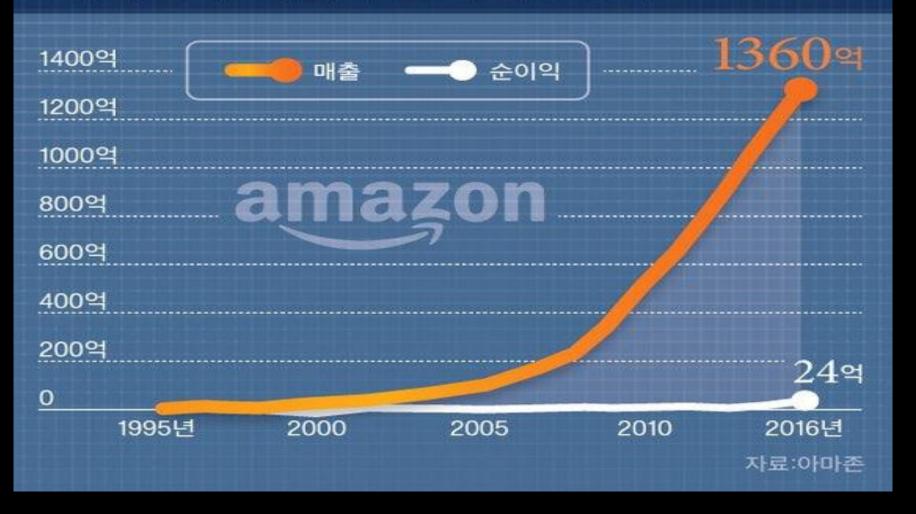
주: 의약품에 대한 소유권 변경 전후의 판매 가격 차이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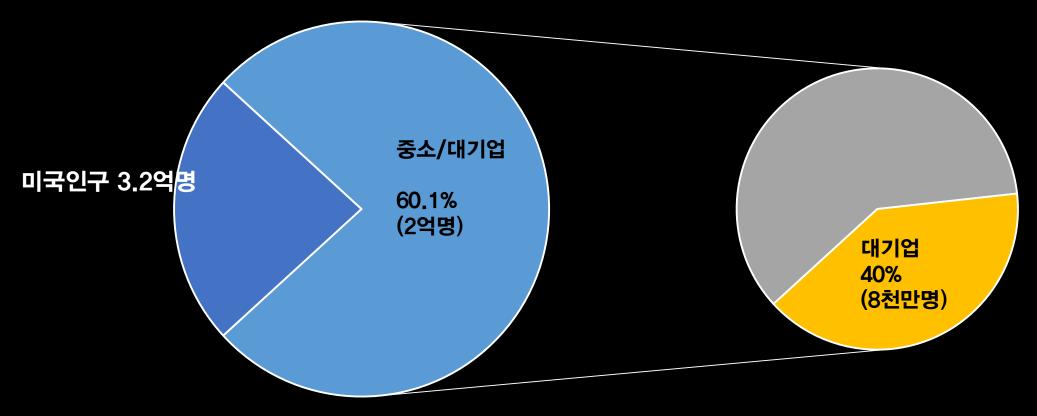
자료: Valeant, 한국투자증권



아마존의 매출과 순이익 단위:달러



확장 가능성



■기타 ■중소형/대기업 ■대기업

3개 업체 임직원 약 120만 (대기업 임직원의 1.6%)

"아마존 연합은 <u>비영리</u>이다"

아마존의 전통적인 사업 전략

→ 1%의 수익률로 20년간 건재

PBM과 가격협상 시 우위

- → 의료비용 절감이 가능해짐
- → 가입자 1000만이면 45-90억 달러 절감 가능
 - : 이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

목표는 수입 창출이 아닌 아마존 연합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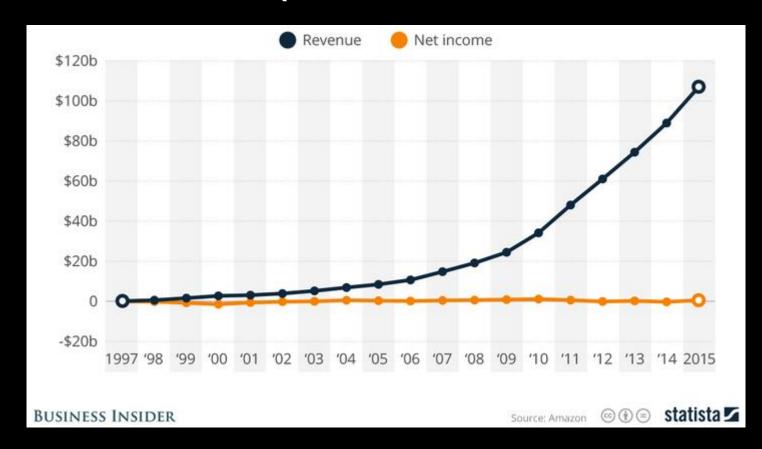
→ 가입자의 데이터는 알렉사(Alexa)와 같이 원격의료 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 시사

아마존의 PBM 사업 전략 amazon®

아마존의 사업 전략

→ "모든 가격 구조를 공개하고 마진을 0%로 수렴시켜 아마존 연합 가입자 수를 증가시킨다"

<u>기존 PBM은 마진 비즈니스(리베이트 전반 + 의약품 배달 절반)</u>



"결정적으로 아마존은 모든 네트워크에 추가 비용이 불필요"

구축되어 있는 물류 배송 시스템

-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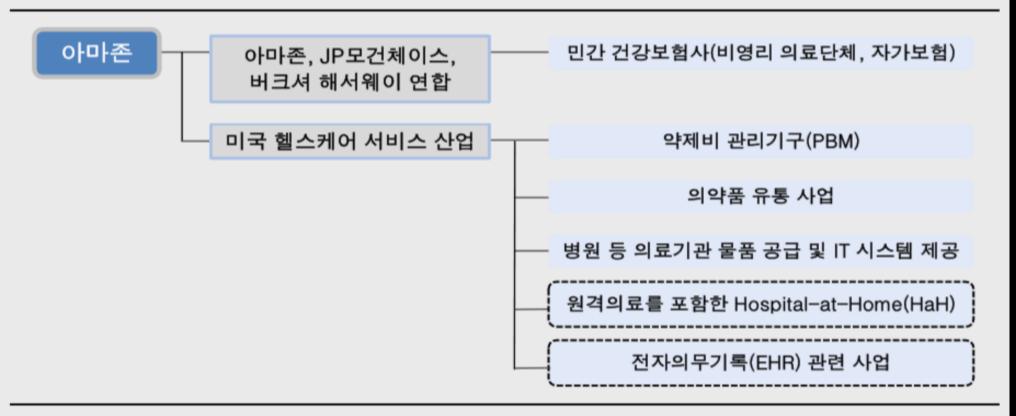
낮은 PBM 진입 장벽

- PBM 사업자 비용: 500달러

제네릭 생산 기업들과 사업 협상

- 밀란, 노바티스(Novartis)의 자회사 산도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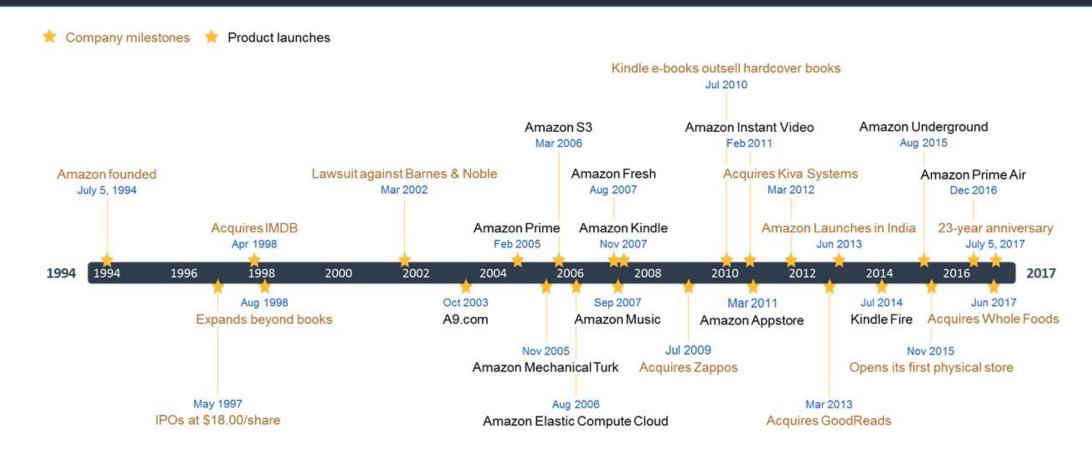
미국 헬스케어 산업 내 아마존의 진출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



주: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향후 아마존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분석 자료: 한국투자증권 아마존이 가장 잘하는 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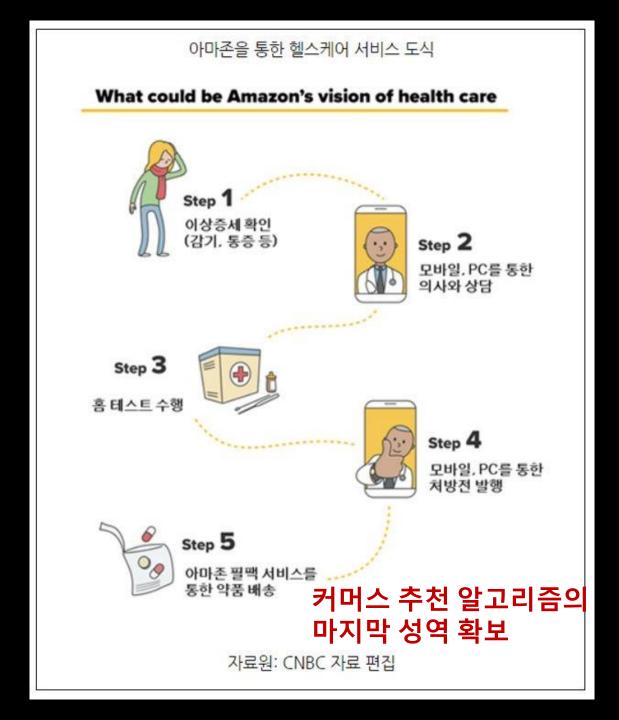
+

진료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위 가능 (특허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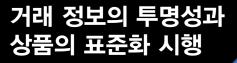


필 팩

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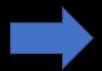




→ 아마존의 기존 전략과 동일







아툴 가완디

→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자

→ 의사 출신 CEO

Winter Is Coming

〈표 2〉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 진출 시 부문별 영향

	제약사	약국 체인	의약품 유통	PBM	민간 보험사
주요 업체	J&J, Pfizer, BMS, Merck, Abbvie 등	CVS Health, Walgreens Boots, Rite Aid 등	AmerisourceBergen, Cardinal Health, McKesson 등	Express Scripts, CVS Health, UnitedHealth Group 등	UnitedHealth Group, Aetna, Humana 등
영향	중립적	매우 부정적	매우 부정적	부정적	약간 부정적
내용	약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있으나 리베이트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음	아마존이 온/오프라인으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 부정적일 수 있음	아마존은 이미 12개 주에서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 취득했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유통을 할 가능성 높음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단기간에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PBM 사업의 구조적 혁신을 일으킨다면 점유율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아마존 연합의 자가보험은 임직원 1,000명 이상을 보유한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

자료: 한국투자증권